

# 연등천의 맑은 물, 살기 좋은 여수

여수 부영초등학교

4학년 윤예은

우리 고향 여수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항구도시이다. 싱싱한 물고기와 해초, 조개들이 풍성하게 나온다. 각종 수산물을 파는 서정시장은 우리 엄마께서 자주 가시는 곳이다. 엄마께서 아침 일찍 시장에 가시면 내가 좋아하는 꽃게도 사오시고 새우도 사오신다. 팔딱팔딱 뛰는 생선을 사오셔서 구워주시면 정말 맛있다.

지난 여름에 엄마를 따라 서정시장에 간 적이 있다. 시장 입구 연등천에는 여수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다리 밑에는 바닷물이 들어온다. 밀물 때에는 엄청 많은 물이 그득하게 밀려 오는데 내가 그곳에 갔던 때에는 마치 사리 때여서 물이 들고 있었다. 그런데 다리 위에서 어른 몇 분이 아래를 내려다 보고 계셨다. 나는 궁금해서 엄마 손을 잡고 다리 난간으로 갔다. 그리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물 속에는 커다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헤엄치고 있었다.

“엄마 저거 봐요. 아, 저 큰 물고기!”

“응. 송어구나.”

“엄마, 저거 뜰채로 건져도 되겠네, 잡을 수 있겠어요.”

엄마는 송어를 지켜보던 눈을 내게로 돌리며,

“안돼, 저 물 좀 봐라. 저렇게 더러운 물에 있는 고기를 어떻게 먹냐?”

엄마 말씀대로 시켜면 물에는 기름띠가 등등 떠있었다. 옆에 계시던 어른들도 아깝다고 하시며 물고기만 바라보셨다. 우리가 가정에서 흘러보내는 더러운 물이 하수도를 타고 연등천으로 내려가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말씀하셨다. 엄마 말씀을 듣고 있노라니 언젠가 TV에서 본 오염된 바다에서 사는 기형 물고기의 등이 휘어진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마음 속으로 이대로 계속 더러운

물을 버리면 바다 속에 사는 여러가지 생명들이 다 병들 것 같아 안타까웠다. 엄마는 그 물고기나 조개를 먹고 사는 사람들도 병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더욱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얼마 후 토요일 오후에 시내에 갈 일이 있어 다시 여수교를 지나가 되었다. 그때는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간 썰물 때여서 연등천의 물이 바짝 말라 있었다.

물이 빠져나간 하천의 바닥에는 각종 쓰레기들이 뒹굴고 있었다. 깨진 음료수 병, 찢어진 비닐 조각, 운동화, 심지어는 떨어진 냉장고 문까지 보였다. 또 가정에서 버려지는 하수도 배관이 악취를 풍기며 괴물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다. 나는 순간 저 더러운 것들이 바다로 흘러가 물고기를 병들게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다. 어쩌면 내가 보았던 송어 떼들은 이미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연등천을 살릴 수 있을까? 곰곰히 생각해 봐도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그것은 어느 한 사람의 노력이 아닌 여수시민 모두가 더러운 물과 쓰레기를 줄여 철저하게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과 실천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이었다.

그런 후 얼마 전에 나는 우연히 저녁 뉴스에서 연등천을 살리기 위한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쓰레기를 줍고 바다 청소를 하는 모습을 TV를 통해서 보며 나는 조금 안심이 되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엄마와 함께 서정시장에 갔을 때에 하천을 파헤쳐 커다란 배관을 묻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일을 하고 있는 아저씨에게 다가가 “아저씨, 지금 무슨 일을 하세요?” 하고 여쭙었다.

“응, 정화조 공사한다.”

“그럼 이제 물이 깨끗해지나요?”

“그렇지. 개천도 썩지 않고 바다도 깨끗해지지.”

나도 모르게 반가움에 웃음이 저절로 나왔다. 큰 목소리로 엄마께 말씀 드렸다.

“엄마, 이제 연등천 송어도 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 물이 맑아지면 송어를 잡아도 되겠지.”

엄마도 내 얼굴을 보며 환하게 웃으셨다. 나는 여기저기 파헤쳤던 다리 아래를 보며 금방 깨끗한 바닷물이 가득 찰 것 같아 신이 났다.

커다란 송어들이 떼지어 자유롭게 올라와 다리에서도 낚시를 할 수 있는 연등천이 되기를 마음속으로 빌었다.

맑은 시냇물이 철철 바다로 흘러가는 연등천과 더욱 아름다워진 우리 고장 여수의 멋진 풍경을 머리 속에 그려보았다.